

옥인아파트 프로젝트展

2010.3.7

종로구 옥인아파트

글/김장언·큐레이터, 미술평론가

내 기억에 오래 전 한 젊은 여성 작가는 옥인동에 살게 되었다면서 좋아했었다. 남들은 평형대를 넓히며 집을 갈아타지만, 자신은 월세에서 전세를 갈아타면서도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고, 허름하지만 그래도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곳은 말로만 들던 '옥인아파트'였지만, 작가는 그 공간이 한국 산업화와 도시화의 상징적 아파트 중 하나라는 사실에는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 공간에 거주하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복잡하고 불편한 사건들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속한 삶의 공간을 개방하고 동료들과 이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자연스럽게 작년 7월부터 <옥인아파트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거주자의 초대와 초대된 작가들의 의기투합, 그리고 공간에 대한 연구, 그리고 프로젝트의 공개라는 <옥인아파트 프로젝트>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와 공간에 대한 작가들의 평범한 연구 혹은 전유의 방식에 머물지 않는 것 같다. 김화웅 이정민 이주영 옥킹탄 조은지 진시우 등 6명의 작가들은 발견된 대상으로써 옥인아파트라는 문화적 컨텍스트에 접근해 갔다가보다는 오히려 삶의 조건으로서 이곳의 현재를 체험하고, 그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유쾌한 놀이를 발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월7일 하루 동안 보여 주었던 이벤트는 어쩌면 지난 7월부터 탐구했던 옥인아파트라는 상황에 대한 그들의 탐험과 모험 그리고 놀이를 설명하기에 부족했다. 이들은 여름날 녹음이 우거진 주변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진한 녹색 방수 페인트로 칠해진 아파트 옥상에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스크리닝과 디제잉을 하며 자신들만의 축제를 열었고, 청와대를 지척에 두면서 밤에 옥상에서 폭죽을 터트리며 군경을 불편하게 했고,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눈 오는 밤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 망명정부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급속히 진행되는 철거 과정 속에서 급히 이곳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폭력은 빠르게 우리의 일상을 점유하고, 우리는 우리가 처한 조건을 바르게 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은지는 철거 과정을 통해서 골격만 남겨진 몇 아파트를 선택하고, 거실 혹은 안방의 창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왕산의 풍경을 볼 것을 제안했다. 직사각형의 프레임만 남겨진 폐허의 공간에서 자연의 숭고함을 느끼게 되지만, 그것은 낭만주의적 가치를 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대한 시적 절규로 변화된다. 진시우와 이정민은 거주민이 남기고 떠난 옥인아파트의 유적 속에서 볼링공을 발견하고, 곧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 사이를 경쾌하게 가로지르는 다큐멘터리 <볼링 포 콜럼바인>을 떠올리며, 오픈 에어 볼링장을 급조한다. 굴러온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들처럼, 우리의 삶도 어디서 굴러올지 모르는 볼링공에 맞아 처참히 파괴되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튕겨갈지도 모른다. 이주영과 옥킹탄은 철거가 진행된 몇몇 아파트를 바(Bar)로 만든다. 이것은 이번 이벤트의 일종의 안내소 혹은 휴게실이긴 하지만, 작가는 이곳을 <고스트 바>라고 명명하고, 내부를 유령 혹은 영혼을 위한 밀교적 애도의 장소로 변형시킨다. 이곳은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허락되지 않고 추방된 혹은 제거된 자들을 위한 림보의 공간으로 작동된다. 그리고 이주영은 이러한 밀교적 정화 과정을 확장시킬 투어를 제안한다. <고스트 워킹>으로 명명된 투어는 단순한 가이드 투어가 아니라 이공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표류(Derive)하기 위한 하나의 순례의 과정이 된다. 그리고 이곳의 거주자인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이기도 했던 김화웅은 자신의 집을 익명의 방문자들에게 개방하고, 현재진행형으로 작동되는 자신의 시간의 흔적을 드러낸다. 우리는 작가의 개인적 취향으로 꾸민 삶의 공간 속에서 어떻게 철거의 과정이 진행되었는지를 보게 되지만, 작가에 의해서 소중히 가꿔지고 간직된 실내와 '삶의 질'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자행되는 철거의 폐허라는 묘한 대조 속에서 우리가 딛고 있는 현재에 대해서 성찰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작동시킨 작가들의 모험과 탐험 그리고 놀이는 '도시 빈민의 삶'의 상황을 대상화하거나 혹은 발견된 오부제로써 옥인아파트라는 공간을 특수화시켜 그곳에 대한 여피적 여가 문화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 작가가 우연히 맞닥뜨린 삶의 조건에 대해서 그의 동료들이 환대와 우정으로 응답하여 창조된 공동의 유쾌한 농담 같은 것이다. 옥인아파트라는 특수성을 통해서 작가들은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떻게 ‘헐벗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어떻게 창조적 전유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에 어떤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건인지에 대해서 진진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위·진시우, 이정민 <볼링 포 옥인(Bowling for Okin)> 옥인아파트 9동 501호에서 수집한 볼링공 2개와 혼합재료 2010

아래 왼쪽·이주영, 육킹탄 <고스트바(Ghost Bar)> 2010

오른쪽·김화용 <너를 우리집에 초대해 > 슬라이드 프로젝션, 싱글채널 비디오, 오브제 2010